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제등[提燈] - 접등[摺燈]

제등의 한 종류로서 간단히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등(摺燈)이 있다. 주름을 잡아서 위아래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종이로 만든 등으로, 그 안에 초나 등잔을 넣어 사용하였다. 형태적으로는 사각이나 육각, 팔각 등 각진 형태와 둥근 형태가 있다. 둥근 형태의 경우는 종이로 만든 바구니 같다 하여 '지롱(紙籠)'으로도 불리는데, 그 접고 펴는 동작이 마치 굴뚝이와 비슷하다 하여 '굴뚝이등'이라고도 한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현종(顯宗) 15년 기록에 '군중(軍中)의 초롱은 사롱(紗籠)과 지롱(紙籠)이 있는데 지롱은 반드시 두꺼운 종이를 쓰며, 이를 구하기 어려워 소호지(小好紙)를 썼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의 지롱이 접등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두꺼운 종이를 썼다는 것에서 접등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아무래도 접었다 폈다 할 때 등의 접히는 부분이 쉽게 해지거나 찢겨질 수 있으므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종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접등의 경우 아래 위 겉면에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를 틀을 만들고 틀 위쪽에는 쓰기에 편리하도록 손잡이나 자루를 달기도 하였다. 종이를 포개거나 접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관이나 휴대 시 매우 간편하다. 틀의 겉면에는 생활 속의 신조(信條)로 삼을 만한 경구(警句)나 경전(經典), 팔괘문(八卦文), 동물문, 인동초나 당초 같은 식물문 등 여러 가지 길상(吉祥)의 의미를 지닌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격을 갖추면서도 삶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사진5의 사례에서는 밑면에 붉은 색 종이를 대고 그 위에 복(福)을 상징하는 박쥐 한 쌍을 투각하였다. 박쥐의 한자어인 '편복(蝙蝠)'의 복(蝠)이 복(福)자와 같은 음이어서 '쌍복'을 나타내는 뜻으로 새긴 듯한데, 불빛에 비친 붉은 색 종이에 투사된 박쥐문양이 더욱 황홀하고 생동감 있게 보인다.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1) 접등(蝙蝠文四角摺燈)// 조선시대// 가로 11cm, 세로 5.3cm, 높이 5.1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접등 접은 모습

사진3) 접등(八卦文八角摺燈)// 조선시대// 전체길이 46.5cm, 너비 13.5cm, 자루길이 25cm//
팬아시아중이박물관

사진4) 지롱(紙籠)// 조선시대// 지름 24.5cm// 전주대학교박물관

사진5) 지롱(紙籠)// 조선시대// 지름 27.5cm// 전주대학교박물관